21C 화학산업 발전을 위하여!

“Don t Cry for Me Korea!”

40대를 전후한 세대라면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그 암울한 시대에 한국을 방문해 “Don t Cry for Me Argentina!”를 감동적으로 부르던 유럽의 4인조 혼성그룹을… 아마 ABBA로 기억되는 혼성그룹의 막내 여가수가 “Don t cry for me …”를 독창할 때면 숨소리도 죽은 듯 고요함이 온 나라를 숙연하게 했다. 아마도 노래에서 흘러나오는 애틋함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경제 · 사회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1980년대는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러할까? 1980년대에는 그래도 국가가 망할지도 모른다던가, 아니면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위기국면은 아니었다. 단지, 반란군들이 온 나라를 휘젓고 막가파식 살상을 일삼으며 총칼을 들이밀었기에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했고,「나 죽고 너 사는」이 아닌「너 죽고 내가 사는」세상이었기에 참을성 많은 국민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공산당」식 눈치보기로 세상을 살아 마음이 괴로웠을 뿐이다.

허나 오늘은 분명「너 죽고 내가 사는」치졸한 세상이 아니라「우리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낭떠러지에 다가와 있지 않은가 하는 심정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적셔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특별한 이슈도 막가야 할 이유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나오는 바에야 무엇으로 대처해야 할 지 뚜렷하지만 그 또한 막막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울산과 여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분쟁을 보노라면 분통이 터지는 가슴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산업현장이 왜 이렇게 피폐해졌을까? 과연 울산과 여천은 한국이 아닌 별천지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다. 여천은 더욱 그러하다.

제3자로서 노-사 분쟁의 이면을 모두 인식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여천NCC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파업 사태는 분명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파행의 종착역일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과급 200%와 290%를 놓고 파업을 벌일 정도로 그리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1990년대 초부터 막가파식 신증설에 따라 에틸렌 생산능력은 세계 3위이고, 합성수지 생산능력은 세계 5위라고들 자랑하지만 NCC를 가동하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의 면면을 분석해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금방 찾아낼 수 있다. 나프타를 비롯한 수입원재료 의존도가 70% 안팎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무슨 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공급과잉을 개미눈으로 흘겨본지 오래됐고, 국내소비가 되살아나 수요창출이 가능하면 좋으련만 그 또한 기대난망인 상태에 있다. 혹자는 국내경기가 되살아나면 국내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는 이미 선진국을 빰치는 수준 이상이고, 소득이 줄었느니 생활이 어려워졌느니 아우성이지만 4500만 국민의 2-3%를 제외한다면 우리보다 국민소득 수준이 3-4배 높은 일본을 능가하는 생활에 젖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경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출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수출경쟁력을 되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석유화학은 원재료 비중이 절대적이고, 유틸리티 및 물류비용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 비중이 1980년대 말 3% 수준에서 최근에는 8% 정도로 급상승했다고 하지 않던가. 순익이 매출의 3%를 넘기 힘든 상황에서 석유화학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연봉수준이 평균 4000만-5000만원이라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 아니던가 말이다.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금융권의 날강도들을 제외한다면 국내 최고 수준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급여를 지급받고서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장기파업이라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울산과 여천은 하루 파업으로 20-50억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한다고 한다. 효성 울산공장은 10여일간의 파업으로 600억-700억원의 손실을 입는데 그쳤으나. 여천NCC는 5월16일로부터 30일이 다 되가니

그 피해액이 족히 2000억-3000억원은 될 것이다. 그 무엇으로 보상하고 만회할 것인가?

Argentina를향해가는적색의무정부주의자들이돌아올수없는바다의낭떠러지에다다르기전에비상조치를취해야하는것이아닌지묻고싶다.

<화학저널 2001/6/18>